독서 종합 적용 05

긴 글의 핵심과 구조 붙잡기

개념 이해·적용 학습지

대치동 재우쌤

묶음	질문	문항
1. 문단의 내용과 역할	01~02	01~06
2. 떨어진 정보 연결	03~04	07~12
3. 관점과 판단의 이동	05~06	13~18
4. 핵심을 보존하는 요약	07~08	19~24

긴 글의 핵심을 이루는 네 관계

1 · 문단의 내용과 역할

무엇을 말하는가
↔ 왜 여기에 놓였는가

문제·원인·방안·한계를
글 전체의 중심과 연결

질문 01~02

2 · 떨어진 정보 연결

같은 말
↔ 같은 대상·조건

지시 범위·정의·조건과
뒤의 결과를 연결

질문 03~04

3 · 관점과 판단의 이동

누구의 말인가
↔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소개한 의견과 글쓴이 판단,
부분 인정을 구별

질문 05~06

4 · 핵심을 보존하는 요약

세부를 덜어 냄
↔ 뜻을 바꿈

공통 내용으로 묶고
핵심 관계·범위를 보존

질문 07~08

부분의 뜻과 관계가 모여 글 전체의 핵심을 이룬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 문단의 내용과 역할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단의 중심 내용	그 문단에서 주로 말하는 내용
문단의 역할	그 문단이 앞뒤 문단 및 글 전체와 맺는 관계 속에서 하는 일
화제	글에서 다루는 대상이나 문제
중심 생각(주제)	글쓴이가 화제에 관해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나 판단.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한다
중심 문장 · 뒷받침 문장	문단의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과, 그 문장을 설명하거나 근거·예를 들어 받쳐 주는 문장
두괄식 · 미괄식 · 양괄식	중심 문장이 문단의 처음 / 끝 / 처음과 끝에 함께 놓인 짜임
글의 구조(짜임)	문제와 해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주장과 근거처럼 문단들이 서로 이어진 짜임

질문 01 문단마다 짧은 제목을 붙이면 글의 구조도 알게 되나요?

> **짧은 제목은 '무슨 내용인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조를 알려면 그 내용이 앞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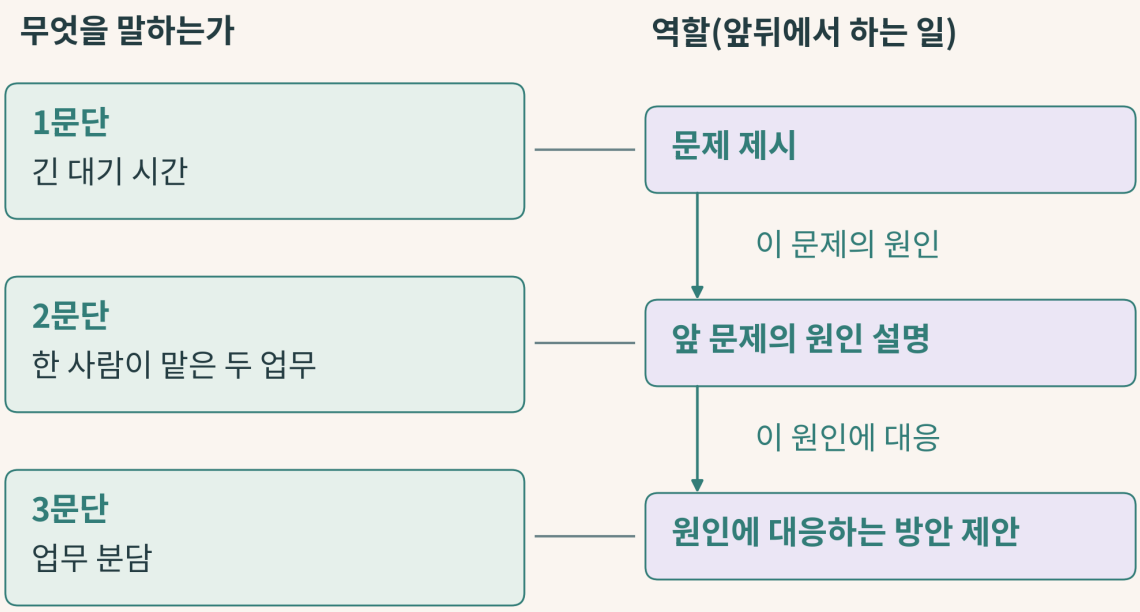
비유로 보기

축구 팀에서 '키가 큰 선수'는 그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골문 앞을 지키는 수비수'는 팀에서 맡은 일을 말합니다. 문단도 같습니다. '긴 대기 시간'은 문단의 내용이고, '해결할 문제를 제시함'은 글 전체에서 맡은 일, 곧 역할입니다. 다만 선수의 포지션도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문단은 예를 들면서 원인을 설명하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내용과 역할을 구별한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예문

1문단: 사람들이 접수 창구에서 오래 기다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문단: 한 직원이 신청서 확인과 물건 전달을 모두 맡고 있었다.
3문단: 두 일을 나누어 맡자고 제안했다.

문단의 내용과 역할



오해 바로잡기

✕ 문단의 내용을 짧게 줄여 쓰면 그것이 곧 문단의 역할이다.

○ '한 직원이 두 업무를 맡음'은 내용이고, '앞 문제의 원인을 설명함'은 역할이다. 역할은 앞뒤 문단과의 관계로 말한다.

한 걸음 더

문단 하나가 예를 들면서 원인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의 이름을 하나로만 외우기보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문단 역할을 나타내는 말
화제 제시 · 문제 제기 · 개념 정의 · 예시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 실행 조건 제시
결과 제시 · 한계 지적 · 반론 · 결론 강조

질문 02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곧 중심 문장인가요?

중심 문장이 처음에 오는 두괄식, 끝에 오는 미괄식 문단이 많지만, 위치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장들이 그 문장을 설명하거나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심 문장이 따로 없으면 여러 문장의 내용을 묶어 중심 내용을 직접 정리합니다. 글 전체의 중심 생각(주제)도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함께 가리키는 것을 찾아 정리합니다.

비유로 보기

퍼즐의 완성 그림은 첫 조각이나 마지막 조각 하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각을 맞추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중심 내용도 처음이나 끝 문장 하나를 무조건 집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함께 가리키는 내용을 맞추어 보아야 잡힙니다. 다만 글에서는 중심 내용이 한 문장에 거의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도 다른 문장들이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부분들이 가리키는 전체 내용을 확인한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예문

"복도에 우산이 자꾸 쓰러진다. 우산 수가 많은 날에는 통로까지 막힌다. 보관대를 벽 쪽으로 옮기고 칸을 나누면 통로를 비우면서 우산을 세울 수 있다. 젖은 바닥을 닦을 사람과 시간도 함께 정해야 한다."

첫 문장에는 문제가, 셋째 문장에는 방안이, 마지막 문장에는 방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이 문단은 중심 문장이 따로 없어서 세 부분을 아울러 '우산 보관과 바닥 관리를 함께 정비해 통로 이용의 불편을 줄이자'로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중심 내용이 원문의 한 문장과 똑같이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 문장과 중심 내용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위치는 단서일 뿐 · 뒷받침 관계를 확인

문제
복도에 우산이 자꾸 쓰러진다.

문제가 커짐
우산 수가 많은 날에는 통로까지 막힌다.

방안
보관대를 벽 쪽으로 옮기고 칸을 나누면
통로를 비우면서 우산을 세울 수 있다.

실행 조건
젖은 바닥을 닦을 사람과 시간도
함께 정해야 한다.

문제·방안·실행 조건을 함께 묶음

중심 내용
우산 보관과 바닥 관리를 함께 정비해
통로 이용의 불편을 줄이자

오해 바로잡기

- ✕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다.
- ○ 마지막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인지, 예외나 실행 조건을 덧붙이는 문장인지 앞의 내용과 연결해 판단한다.

자료 A 공구가 돌아온 뒤에 생긴 일

① 한 마을의 공구 대여소는 주민에게 드릴과 손수레 등을 빌려준다. 어느 날 주민 한 사람이 예약한 드릴을 받으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드릴은 제때 반납되었고 장부에도 '보관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직원이 꺼내 보니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이 일은 공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만으로 다음 대여가 준비되는지 묻게 했다.

② 운영팀은 그달의 반납 장부와 점검 기록을 함께 살폈다. 반납 시간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만, 작동 상태를 확인했는지는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파손 신고가 들어온 공구만 점검했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구도 '보관 중'으로 함께 기록되었다. 제때 돌아왔다는 정보와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정보가 장부에서 구별되지 않은 것이다.

③ 운영팀은 공구를 '반납 접수', '점검 대기', '대여 가능'으로 나누어 기록하자고 제안했다. 반납된 물건에는 먼저 접수 표시를 하고, 작동 상태와 부속품을 확인한 뒤에만 대여 가능 표시를 붙이는 방식이다. 수리가 필요한 공구는 점검 결과와 함께 따로 보관한다. 주민에게 보여 주는 예약 목록에도 대여 가능한 공구만 올리기로 했다.

④ 다만 표시 칸을 늘리는 일만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주말에는 반납이 몰리는데, 당시 대여소에는 그 시간에 점검을 맡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기록 양식만 바꾸면 '점검 대기'라고 적힌 공구가 쌓일 수도 있다. 상태를 구별하는 기록과 실제 점검을 담당할 사람·시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⑤ 운영팀은 토요일 오후에 점검 담당 시간을 두고 새 기록 방식을 시험했다. 시험한 두 주 동안에는 점검하지 않은 공구를 '대여 가능'으로 올린 일이 없었다. 그러나 고장 난 공구의 수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예약 목록에 잘못 올린 일이 없었다는 기록과 수리 속도가 나아졌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했다.

⑥ 대여소가 관리해야 할 것은 공구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공구를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는 상태인지까지다. 반납·점검·대여 가능 상태를 구별해 기록하고 실제 점검할 사람과 시간을 연결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공구는 별도의 처리 과제로 남는다. 장부의 표시와 현장의 일이 맞물릴 때, 예약한 주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공구를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



01 이 글의 중심 생각(주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구를 ‘반납 접수’, ‘점검 대기’, ‘대여 가능’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대여소의 문제는 해결된다.

② 반납된 공구가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상태인지를 기록으로 구별하고, 그 기록이 실제 점검과 맞물리도록 사람과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③ 반납 시간을 빠짐없이 적어 두면 예약한 공구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④ 장부의 표시 칸을 늘리기만 하면 고장 난 공구의 수리도 빨라진다.

02 2문단이 1문단과 맺는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문단에서 드릴이 고장 난 원인을 밝혀 설명한다.

② 1문단의 불편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③ 1문단과 같은 일이 대여소에서 자주 일어났음을 수치로 보여 준다.

④ 1문단의 불편이 생긴 배경을 기록 방식의 문제와 연결해 설명한다.

03 4문단이 3문단의 제안에 덧붙이는 내용을 쓰세요.

〈조건〉
· 기록 양식만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쓸 것
· 제안이 실행되려면 무엇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지 쓸 것

답

04 5문단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안을 시험한 결과를 밝히면서, 그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눈다.
② 4문단에서 걱정한 대로 '점검 대기' 공구가 쌓였음을 보여 준다.
③ 시험 결과를 근거로 수리가 필요한 공구를 따로 보관하자고 처음 제안한 문단이다.
④ 모든 고장 난 공구의 수리가 끝났음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 준다.

05 다음 문장을 글에 넣을 때, 앞뒤 관계를 고려한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가 문장〉
예를 들어, 손수레가 돌아왔어도 바퀴와 손잡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대여 가능'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① 1문단 끝: 드릴을 빌려줄 수 없었던 일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로 넣는다.
② 2문단 끝: 기존 장부가 상태를 구별하지 못한 예로 넣는다.
③ 3문단 둘째 문장 뒤: 제안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넣는다.
④ 4문단 끝: 점검할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의 예로 넣는다.

06 이 글의 1~6문단을 세 부분으로 묶어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표의 빈칸을 채우세요.

문단	글에서 하는 일
1~2	불편 사례를 제시하고 그 배경의 기록 문제를 밝힘
3~4	(1) _____
5~6	(2) _____

〈조건〉
· (1)에는 제안과 실행 조건을 함께 쓸 것
· (2)에는 확인한 효과와 한계,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쓸 것

2 떨어진 정보 연결

용어 약속

용어	뜻
지시 표현(지시어)	‘이것’, ‘그 방식’, ‘이런 차이’처럼 앞뒤의 대상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
지시 범위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낱말·문장·여러 문장의 범위
조건	어떤 내용이나 판단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상황이나 제한
미확인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상태. ‘아니다’나 ‘없다’와 다르다
인과 관계	어떤 일이 다른 일을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시간적 순서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순서. 순서만으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질문 03 ‘이 방식’은 바로 앞의 낱말만 가리키나요?

가까운 말이 단서가 되지만, 한 문장이나 여러 문장에 걸친 방법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었을 때 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비유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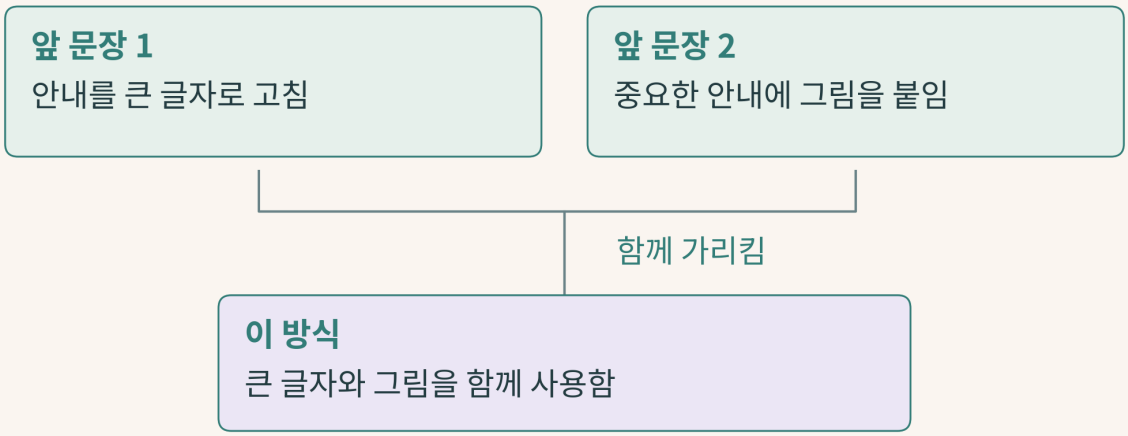
친구가 가방 속 물건을 몇 개 꺼낸 뒤 “이것들을 먼저 옮겨 줘”라고 하면 마지막 물건 하나만 옮겨서는 부탁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글의 지시 표현도 가리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화에는 손짓이 있지만 글에서는 앞뒤 내용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예문

“전시 안내를 큰 글자로 고쳤다. 중요한 안내에는 그림도 붙였다. 이 방식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관람객이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방식’은 큰 글자만이 아니라 큰 글자와 그림을 함께 사용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림’이라는 마지막 낱말 하나로 바꾸면 앞의 방법 일부가 빠집니다.

한 낱말보다 넓은 지시 범위



마지막 낱말 하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님

오해 바로잡기

- ✕ 지시 표현은 언제나 바로 앞의 낱말 하나를 가리킨다.
- ○ 지시 표현 자리에 가리킬 수 있는 내용을 넣어 읽어 보고, 뒤 문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범위를 고른다.

질문 04 앞에서 나온 조건은 뒤에 다시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뒤 내용이 앞에서 정한 대상이나 방법을 이어받으면, 앞의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유로 보기

새벽에 닭이 울고 나서 해가 떠도, 닭의 울음이 해를 뜨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뒤로 일어났다는 순서만으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어떤 공놀이에서 '공을 손으로 만지면 반칙'이라고 정했다면, 경기 중에 매번 다시 말하지 않아도 그 규칙은 이어집니다. 글에서 앞에서 정한 뜻과 조건도 이처럼 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글에서는 대상이나 조건이 바뀌기도 하므로 '이번에는', '이와 달리' 같은 말과 실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앞의 조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시간 순서만으로 인과를 확정할 수 없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예문

"이 글에서 '참여자'는 토요일 체험에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신청한 사람은 모두 안내 문자를 받았다. 참여자 가운데 현장에 온 사람은 18명이었다. 다만 문자를 실제로 읽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의 참여자를 마을 주민 전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의 정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문자를 보낸 뒤 18명이 왔다'는 순서만으로 문자가 참석을 늘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은 뒤에서도 '알 수 없음'으로 남습니다. '참여자 18명은 모두 문자를 읽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두 읽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의 정의·순서·미확인을 연결하기

① 정의의 연결

앞의 참여자 정의
토요일 체험 신청자

같은 범위를 이어받음

뒤의 참여자 18명
신청자라는 범위 유지

마을 주민 전체로 넓히지 않음

② 시간 순서와 인과

안내 문자 발송 → (시간 순서) → **현장 참석**

참석을 늘린 원인인지는 미확인

③ 미확인의 유지

앞에서 확인하지 않음
문자를 실제로 읽었는지

알 수 없음이 이어짐

뒤에서도 알 수 없음
18명이 읽었는지

알 수 없음 ≠ 아니다

오해 바로잡기

- ✕ 같은 낱말이 반복되면 언제나 같은 대상을 말한다.
- ○ 이름이 같아도 시기·대상·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이름이 달라도 같은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 ✕ 두 일이 앞뒤로 나오면 앞의 일이 반드시 원인이다.
- ○ 글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지, 단지 순서나 함께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지 구별한다.

자료 B 안내판을 바꾼 날의 기록

① 한 문화 공간은 행사장 입구에서 전시실까지 가는 안내판을 시험했다. 이 글에서 '확인 요청'은 방문객이 갈림길의 직원에게 전시실 방향을 다시 물은 일을 뜻한다. 이 기록에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넣지 않았다. 시험팀은 서로 다른 두 날짜에 방문객 각 40명의 이동을 관찰했고, 관찰한 사람 중 확인 요청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셌다. 두 날짜의 방문객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

② 첫째 날에는 갈림길마다 작은 글씨로 전시실 이름만 적은 A형 안내판을 두었다. 둘째 날에는 글씨를 크게 하고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더한 B형 안내판을 두었다. 두 날 모두 길의 배치와 직원이 서 있는 위치는 같았다. B형의 글씨 크기와 화살표는 함께 바뀌었으므로, 이 기록만으로 둘의 효과를 각각 나누어 볼 수는 없었다.

③ 시험팀은 관찰 대상자가 길에 들어선 뒤 전시실에 도착할 때까지를 기록했다. 같은 사람이 방향을 여러 번 물었더라도 '확인 요청을 한 사람' 수에는 한 명으로 넣었다. 다만 방문객이 갈림길에서 오래 망설였는지, 안내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갔는지는 세지 않았다.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곧바로 혼자 쉽게 길을 찾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④ 기록을 모으니 A형을 둔 날에는 40명 중 12명, B형을 둔 날에는 40명 중 5명이 확인 요청을 했다. B형을 둔 날의 수가 더 적었다. 이 차이는 안내판을 바꾼 뒤 나타난 결과를 살필 단서였다. 그러나 날짜와 방문객이 달랐으므로 이 차이가 안내판의 변경만으로 생겼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다.

구분	안내판	관찰 인원	확인 요청을 한 사람
첫째 날	A형: 작은 글씨·화살표 없음	40명	12명
둘째 날	B형: 큰 글씨·화살표 추가	40명	5명

⑤ 결과를 들은 한 관계자는 "둘째 날에는 35명이 안내판 덕분에 전혀 헤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35명'은 40명에서 확인 요청을 한 5명을 뺀 수다. 이 수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갔거나 망설이고도 질문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런 행동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35명 모두가 쉽게 길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⑥ 시험팀은 B형을 둔 날 확인 요청을 한 사람이 더 적었다는 관찰 결과는 남기되, 안내판만의 효과와 관찰하지 않은 행동까지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시험에서는 글씨와 화살표 중 한 요소만 바꾸어 비교하고, 날짜별 방문객 구성 같은 다른 차이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확인 요청 여부뿐 아니라 망설임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행동도 따로 기록할 계획이다.



07 4문단의 ‘이 차이’가 가리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날의 관찰 인원이 서로 달랐다는 것
② B형 안내판에서 글씨 크기와 화살표가 함께 바뀌었다는 것
③ A형을 둔 날과 B형을 둔 날의 확인 요청을 한 사람 수가 달랐다는 것
④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35명이 쉽게 길을 찾았다는 것

08 〈상황〉의 방문객을 이 글의 ‘확인 요청을 한 사람’ 수에 넣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상황〉**
> 관찰 대상인 방문객 한 사람이 갈림길 직원에게 전시실 방향을 두 번 묻고, 입장권 가격도 한 번 물었다.

① 한 명으로 넣는다. 방향을 반복해서 물어도 같은 사람은 한 명이며 가격 질문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두 명으로 넣는다. 전시실 방향을 두 번 물었기 때문이다.
③ 세 명으로 넣는다. 직원에게 세 번 질문했기 때문이다.
④ 넣지 않는다. 방향과 가격을 함께 물었기 때문이다.

09 5문단의 관계자 말에서 '35명이 전혀 헤매지 않았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쓰세요.

〈조건〉
· 35명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인지 쓸 것
· 기록하지 않은 행동을 한 가지 이상 연결할 것

답

10 2문단과 6문단을 연결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씨와 화살표를 함께 바꾸었으므로 각각의 효과가 이미 분리되어 확인되었다.
② 6문단의 계획은 2문단에서 두 날의 길 배치와 직원 위치가 달랐던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③ 한 요소만 바꾸면 확인 요청 외의 행동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④ 두 요소를 함께 바꾼 한계가 있어, 다음에는 한 요소만 바꾸고 다른 차이도 살피려 한다.

11 4문단과 5문단을 함께 읽은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둘째 날의 35명은 모두 안내판만 보고 곧바로 전시실에 도착했다.
② 둘째 날 확인 요청을 한 사람은 더 적었지만, 그 결과만으로 안내판만의 효과나 35명의 이동 상태를 확정할 수 없다.
③ 안내판만의 효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12명과 5명'이라는 관찰 기록도 반드시 거짓이다.
④ 첫째 날에 확인 요청을 한 12명은 둘째 날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12 6문단의 후속 계획이 각각 앞의 어느 문단의 어떤 한계에 대응하는지 쓰세요.

후속 계획	앞에서 드러난 한계(문단 번호)
(예) 글씨와 화살표 중 한 요소만 바꾸어 비교함	2문단: 글씨와 화살표를 함께 바꾸어 각각의 효과를 나눌 수 없었음
날짜별 방문객 구성 같은 다른 차이도 살핌	(1) _____
망설임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행동도 기록함	(2) _____

〈조건〉
· 각 칸에 해당 문단 번호를 함께 쓸 것

3 관점과 판단의 이동

용어 약속

용어	뜻
관점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기준·방향
평가 기준	좋고 나쁨, 적절함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조건
의견의 주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말한 사람
역접	앞 내용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내용을 이어 주는 관계(그러나, 하지만 등). 화제를 바꾸는 '전환'과 구별한다. 접속 표현의 실제 관계는 문맥으로 판단한다
부분 인정	상대 의견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 전체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완	부족한 점을 채우거나 방법·조건을 더하여 고침

질문 05 글 속에 소개된 의견은 모두 글쓴이 생각인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개한 부분과 글쓴이가 판단한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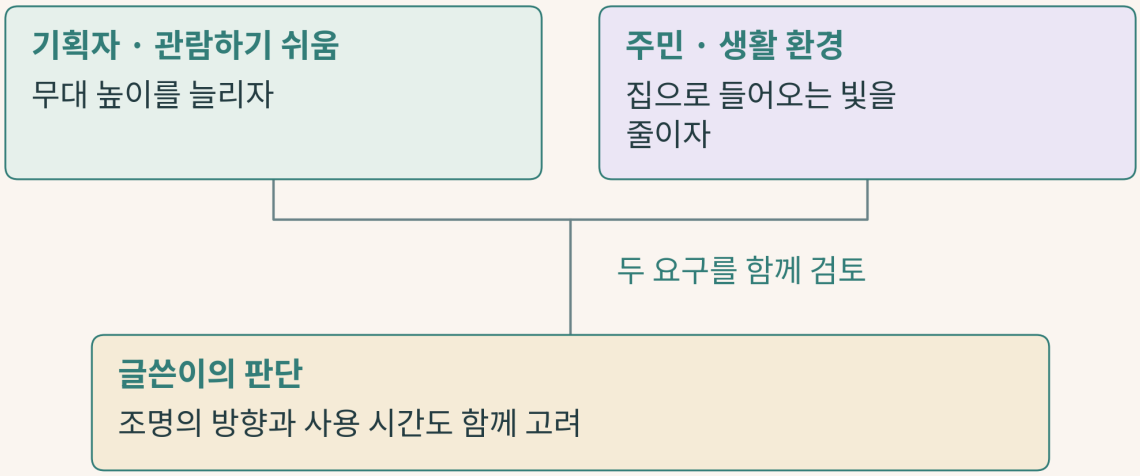
비유로 보기

중계자가 두 선수의 말을 차례로 전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두 말을 모두 자신의 주장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글에서도 "어떤 사람은 …라고 본다"는 말은 의견의 주체를 알려 줍니다. 다만 인용 표시가 없더라도 앞 문장에서 소개한 사람의 의견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문

"기획자는 축제 무대가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한다며 높이를 늘리자고 했다. 주민은 주변 집으로 들어가는 빛을 줄이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요구는 각각 관람과 생활 환경에 초점을 둔다. 나는 높이만 정하기 전에 조명의 방향과 사용 시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문제를 보는 서로 다른 기준



의견을 소개했다는 사실 ≠ 그 의견에 모두 동의함

오해 바로잡기

- ✕ 먼저 소개한 의견이 글쓴이의 최종 의견이다.
- ○ 소개 순서와 글쓴이의 동의 여부는 다르다. 뒤의 판단까지 연결해야 한다.

질문 06 '그러나'가 나오면 앞의 내용은 전부 버려야 하나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는 앞말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지만, 앞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적용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보기

친구가 만든 포스터를 보고 "색은 정말 눈에 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멀리서는 안 보여. 색은 살리고 글씨를 키우자."라고 말했다면, 포스터를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장점은 인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뒤의 말도 앞말 전체를 부정하는지, 일부를 인정하고 고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글에서는 앞의 주장을 통째로 반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고치는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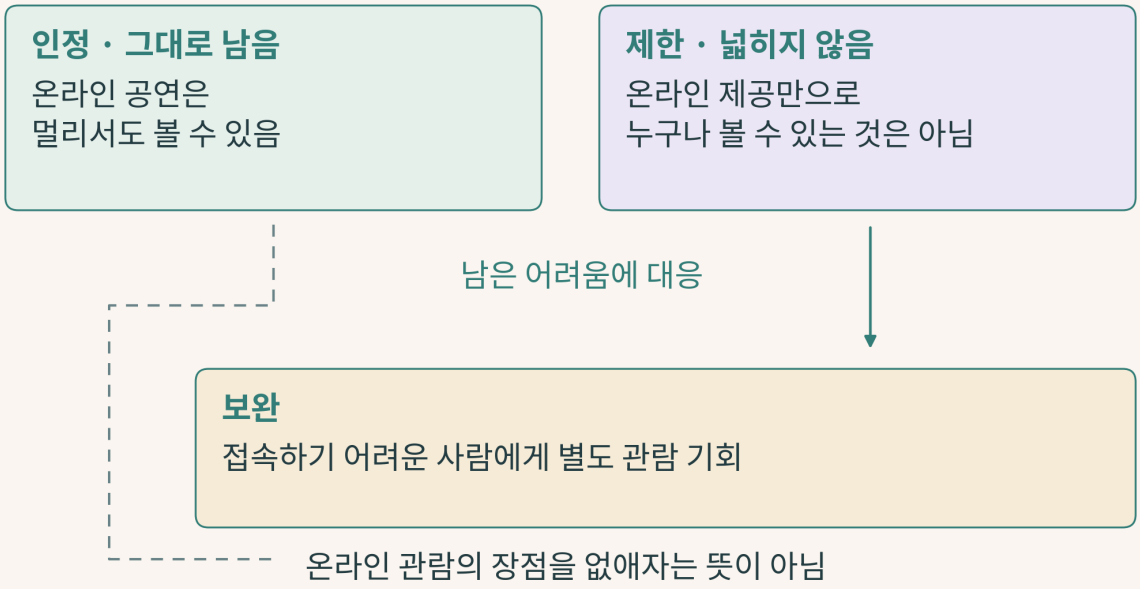
예문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여 주면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연이 열린 것은 아니다. 접속 기기나 사용 방법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관람 기회가 필요하다."

글쓴이는 온라인 관람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고친 것은 '온라인으로만 제공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넓은 판단입니다. 온라인 관람을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내용과 제한하는 판단

역접(그러나) 뒤의 제한



오해 바로잡기

- ✕ '그러나' 같은 역접의 접속어 뒤에서는 앞의 사실도 모두 거짓이 된다.
- ○ 사실의 부정인지, 평가 기준의 이동인지, 조건의 추가인지 내용으로 구별한다.

자료 C 산책길 지도에 무엇을 남길까

① 하천 옆 산책길의 새 지도를 만들면서 '보기 좋은 지도'의 뜻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길 이름과 쉼터만 넣은 첫 시안은 빈 공간이 넉넉하고 전체 경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제작팀은 이 시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이용자와 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글쓴이인 나도 이 과정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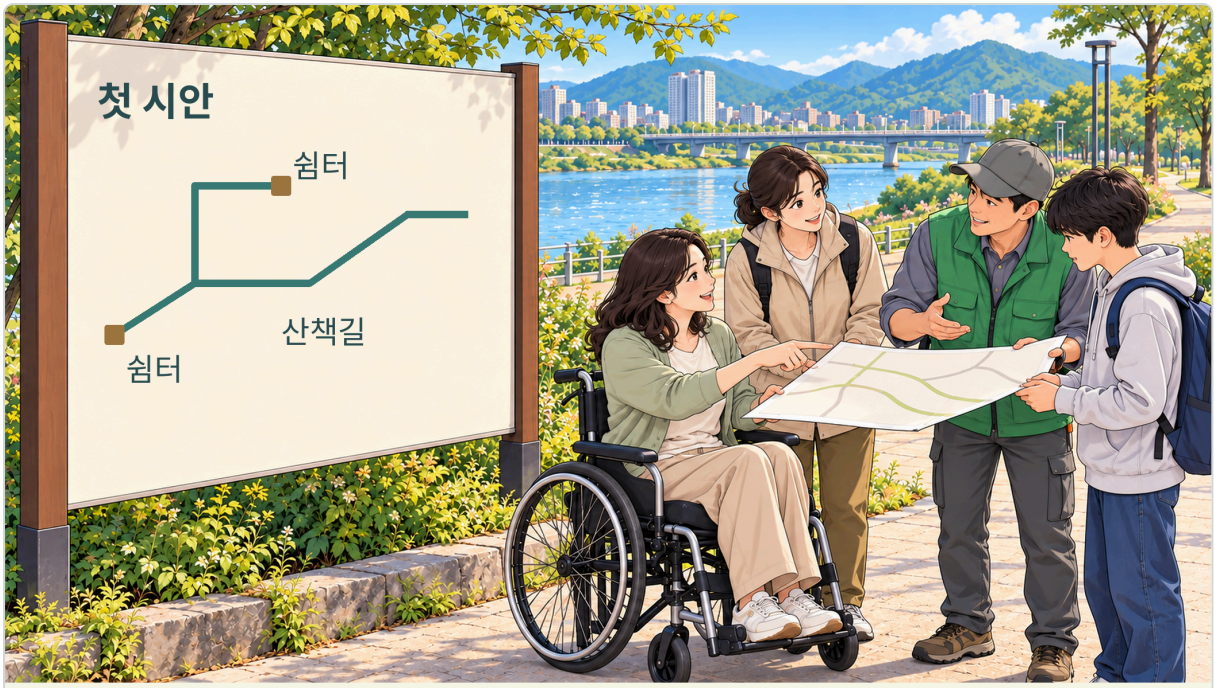
② 산책길을 자주 걷는 사람은 지도에서 전체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미 익숙한 갈림길의 설명이나 자세한 시설 표시는 줄여도 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보기 좋은 지도는 필요한 길을 한눈에 찾을 수 있고, 익숙한 정보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도였다.

③ 처음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는 다른 점을 물었다. 지도에 경사 구간과 계단이 구별되어 있는지, 계단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는지가 궁금했다. 이 정보가 빠지면 지도에서는 연결된 길처럼 보여도 자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에게 보기 좋은 지도는 표시 수가 적은 지도가 아니라, 이동할 길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분명한 지도였다.

④ 관리 담당자는 임시 공사로 길이 막힐 때의 문제를 덧붙였다. 영구적인 시설과 달리 통제 구간은 바뀔 수 있다. 지도를 다시 인쇄하기 전까지는 이미 나누어 준 지도에 지난 정보가 남아 있으므로, 수정 날짜를 밝힌 현장 안내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지도에 많은 정보를 넣는지보다 그 정보가 언제의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⑤ 세 의견은 단순히 '표시를 적게 넣자'와 '많이 넣자'의 대립만은 아니다. 전체 경로를 빨리 찾는 일,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고르는 일, 바뀐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요구다. 익숙한 사람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표시도 처음 온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익숙함을 모든 이용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⑥ 나는 전체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첫 시안의 장점을 유지하되, 계단·경사와 우회 경로를 구별해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임시 통제는 수정 날짜가 있는 현장 안내로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표시를 더하기만 하면 지도가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 경로와 추가 정보를 구별해 읽을 수 있도록 표시의 모양과 범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지도는 간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가 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첫 시안에 담긴 정보만 나타낸 예시

13 2문단과 3문단의 관점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주 걷는 사람은 시설 표시를 모두 없애자고 하고, 처음 방문한 사람은 표시를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본다.

② 자주 걷는 사람은 수정 날짜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계단 표시를 중요하게 본다.

③ 두 사람 모두 전체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④ 자주 걷는 사람은 전체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는 점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실제 이동 가능성을 판단할 정보를 중요하게 본다.

14 4문단의 관리 담당자가 중요하게 본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단과 경사 구간을 구별해 표시했는지

② 정보가 언제의 상태를 나타내는지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익숙한 정보를 되풀이하지 않는지

④ 지도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15 6문단에서 글쓴이가 첫 시안의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보완하는지 쓰세요.

〈조건〉
· 유지하는 장점을 쓸 것
· 보완할 정보를 한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쓸 것

답

16 이 글을 읽고 나눈 말 가운데, 말한 주체를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2문단에 설명을 줄이자는 말이 있으니 글쓴이도 모든 자세한 표시를 없애자는 입장이야."
② "3문단의 의견을 소개했으니 글쓴이는 전체 경로가 한눈에 보이는 장점을 부정하는 거야."
③ "6문단의 '나는'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세 사람과 따로 글쓴이가 자신의 판단을 밝히는 부분이군."
④ "4문단에 관리 담당자가 등장하니 이후의 '나'도 관리 담당자를 가리키는군."

17 6문단의 '그렇다고' 뒤 문장이 하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자는 제안이 '표시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는다.
② 앞에서 말한 계단·경사 구별 표시 제안을 거두어들인다.
③ 관리 담당자의 의견보다 휠체어 이용자의 의견이 옳다고 판정한다.
④ 첫 시안처럼 표시를 줄이는 편이 결국 더 낫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간다.

18 이 글의 2~6문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누구의 생각이 나오는지와 그 부분이 글에서 하는 일을 쓰세요.

문단	누구의 생각인가	글에서 하는 일
2~4	자주 걷는 사람 · 휠체어 이용자 · 관리 담당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세 의견을 소개함
5	(1) _____	(2) _____
6	(3) _____	(4) _____

〈조건〉
· (2)에는 세 의견을 어떻게 다시 보았는지 쓸 것
· (4)에는 앞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쓸 것

4 핵심을 보존하는 요약

용어 약속

용어	뜻
삭제	중심 내용과 관계없거나 되풀이되는 세부를 지우는 것
선택	여러 문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을 골라 남기는 것
일반화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공통점에 맞는 상위어로 묶는 것
재구성	흩어진 핵심 내용을 관계가 드러나도록 새 문장으로 엮는 것
범위 표현	'일부', '관찰한 기간', '이 조건에서는'처럼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말

질문 07 자주 나오는 낱말을 모으면 요약이 되나요?

중요한 낱말을 찾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 낱말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남겨야 요약이 됩니다.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골라 남기는 것은 '선택'이고, 흩어진 핵심 내용을 관계가 드러나게 새 문장으로 엮는 것은 '재구성'입니다.

비유로 보기

'밀가루·물·그릇'만 나열한 것은 재료 목록이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요약도 핵심어만 모으면 대상은 남아도 문제·이유·방법 같은 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이 언제나 조리 순서처럼 시간 순서를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문

"모임 공지가 게시판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변경된 시간을 찾기 어려웠다. 운영자는 공지를 한곳에 모으고, 수정한 날짜를 함께 적기로 했다."

낱말을 모으는 것과 관계를 남기는 것

낱말 나열
모임 · 공지 · 게시판 · 시간 · 날짜
대상은 있으나 관계는 빠짐

관계를 남긴 요약

원인
공지가 여러 곳에 흩어짐

문제 발생

문제
변경 시간을 찾기 어려움

대응 방안

방안
공지를 모으고 수정 날짜를 표시

완성된 요약 문장
흩어진 공지 때문에 변경 시간을 찾기 어려워,
공지를 모으고 수정 날짜를 표시하기로 했다.

오해 바로잡기

✕ 원문 낱말을 많이 넣을수록 정확한 요약이다.

○ 낱말을 그대로 썼어도 관계가 바뀌면 부정확하다. 다른 말로 바꾸어도 뜻과 범위를 지키면 요약이 될 수 있다.

질문 08 짧게 만들려면 조건이나 '일부' 같은 말부터 빼도 되나요?

빼도 뜻이 유지되는 세부와 빼면 판단이 달라지는 제한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상·범위·원인·조건은 짧은 말이라도 핵심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보기

일기 예보의 '오후 한때 비'를 '비'로만 줄이면 비가 오는 시간의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오후 한때'는 짧지만 비가 오는 범위를 정하는 말입니다. 요약에서 '일부', '이번에', '신청한 사람 중' 같은 말도 이렇게 범위를 정합니다. 다만 꾸미는 말을 모두 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꾸미는 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빼면 뜻이 달라지는 범위 표현을 남긴다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예문

"이번 체험에 신청한 사람 중 안내 문자를 받은 일부가 장소를 쉽게 찾았다고 답했다."

이를 "사람들은 안내 문자 덕분에 장소를 쉽게 찾았다"로 줄이면 신청자라는 대상과 일부라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응답 내용을 문자의 효과로 확정하는 뜻도 보탭니다. "체험 신청자 가운데 문자를 받은 일부는 장소를 쉽게 찾았다고 답했다"처럼 바꾸면 핵심 범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되는 세부 · 남겨야 할 제한

예문의 핵심 범위

체험 신청자 가운데	대상
문자를 받은 일부가	범위
장소를 쉽게 찾았다고 답함	응답 내용

삭제할 수 있음

핵심과 관계없는 반복
중심을 바꾸지 않는 세부

남겨야 함

대상·범위·조건
핵심 내용 사이의 관계

원문보다 넓힌 말

"문자 덕분에 모두 쉽게 찾음"은 원인과 범위를 보탬

오해 바로잡기

✕ '일부'나 조건을 나타내는 짧은 말은 먼저 지워도 된다.

○ 말의 길이보다 뜻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대상·범위·조건을 바꾸는 표현은 짧아도 남긴다.

한 걸음 더

'사과·배·복숭아'를 '과일'로 묶듯 구체적인 것을 공통말로 묶는 방법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말이 포함하는 모든 것에 원래 내용이 성립한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세 과일의 판매가 늘었다는 기록이 모든 과일의 판매 증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D 마을의 소리를 모으는 기록함

① 한 마을 기록 모임은 사진에 담기 어려운 생활의 모습을 소리로 남기기로 했다. 새벽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 공방의 작업 소리, 저녁 운동장의 소리 등을 짧게 녹음해 기록함에 모았다. 운영자는 이런 자료가 주민의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소리 파일을 많이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록함이 마을 전체의 생활을 고르게 담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② 처음 들어온 파일들을 살펴보니 주말 낮에 사람이 많이 지나는 거리의 소리가 많았다. 녹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시간과 장소에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일 이른 아침의 골목이나 저녁의 조용한 구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담겼다. 파일 수가 많은 곳이 반드시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것은 아니었다. 기록량에는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웠던 조건도 반영되어 있었다.

③ 운영팀은 파일마다 녹음한 장소와 시간, 당시의 상황을 적도록 했다. 공방의 소리에는 작업 중이었는지 정리 중이었는지, 운동장의 소리에는 행사가 있었는지 평소 모습이었는지 등을 덧붙였다. 이는 소리만 듣고 장면을 짐작할 때 생기는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운영팀은 설명에 파일에 담기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④ 또 시간대와 구역별로 현재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표를 만들었다. 자료가 적은 칸에는 보충 녹음을 제안했지만, 모든 시간과 장소의 소리를 이미 확보했다고 표시하지는 않았다. 표에는 아직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남겼다. 이용자는 어느 부분이 풍부하고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보고, 기록함이 보여 주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었다.

⑤ 한 달 동안 이 방식을 시험한 뒤 새로 들어온 파일에는 장소·시간·상황 설명이 모두 붙었다. 오전 자료가 없던 한 구역에는 파일 세 개가 추가되었다. 다만 마을의 모든 구역과 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설명을 붙이고 부족한 부분을 일부 채웠다는 결과를 기록의 완전성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었다.

⑥ 이 기록함의 가치는 많은 소리를 모으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리를 이해할 맥락을 함께 남기고, 어떤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지와 아직 비어 있는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가 자료를 마을 전체의 모습으로 성급히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족한 기록을 보완하는 일과 현재 기록의 한계를 밝히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많음 ■ 적음 □ 아직 없음

칸의 배치는 기록량의 차이와 빈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

19 이 글을 요약할 때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리를 이해할 맥락과 기록이 비어 있는 부분을 함께 밝혀, 기록함을 확인된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

② 소리 기록은 사진보다 마을의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 주므로 소리 파일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

③ 파일마다 장소·시간·상황을 적으면 기록함이 마을 전체를 고르게 담게 된다.

④ 한 달 시험으로 빈 시간대를 채웠으므로 기록함을 마을 전체의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 3문단에서 공방의 소리에 덧붙인 '작업 중이었는지 정리 중이었는지'와 운동장의 소리에 덧붙인 '행사가 있었는지 평소 모습이었는지'를 하나로 묶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리를 녹음한 장소

② 공방과 운동장에서 나는 소리

③ 녹음 당시의 상황

④ 마을 생활의 모든 모습

21 다음 요약에서 뜻이 넓어진 부분을 모두 찾아, 5문단의 내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요약〉
한 달 동안 시험한 결과, 새 파일의 설명을 갖추고 빠진 자료를 보충하여 마을의 모든 구역과 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했다.

〈조건〉
· 실제로 확인한 결과를 남길 것
· 아직 확인하지 않은 범위를 드러낼 것

답

22 2문단의 요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므로 주말 낮의 거리 소리를 가장 많이 녹음했다.
②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시간과 장소에 기록이 몰려, 파일 수만으로 장소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다.
③ 주말 낮의 거리 소리가 많으므로 주민들은 주로 주말 낮에 생활한다.
④ 녹음에 참여한 사람이 적어서 평일 이른 아침의 소리를 담지 못했다.

23 글 전체를 요약할 때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례의 물건 이름은 모두 남기고, 기록의 빈 부분을 밝히자는 내용은 삭제한다.
② 중심만 남기기 위해 '한 구역', '아직' 같은 짧은 말은 삭제한다.
③ 공방·운동장·가게의 소리를 '마을의 모든 소리'로 묶어, 기록함에 마을의 모든 소리가 담겼다고 쓴다.
④ 개별 소리의 예는 덜어 내되, 기록이 치우친 이유와 맥락·범위를 밝히자는 중심 관계는 남긴다.

24 이 글 전체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조건〉
· 첫 문장에는 기록이 일부 시간·장소에 몰린 이유와 그로 인한 판단의 한계를 쓸 것
· 둘째 문장에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두 방향의 보완을 쓸 것
· 모든 구역과 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했다는 뜻으로 쓰지 말 것

(1)

(2)

헷갈리기 쉬운 네 짝

내용 ↔ 역할
무엇을 말하는가
앞뒤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질문 01 · 문항 02~04

같은 말 ↔ 같은 범위
표현이 같아도 대상·조건과
집계 단위는 다를 수 있음
질문 03~04 · 문항 08~12

소개 의견 ↔ 글쓴이 판단
말한 주체와
판단 기준을 확인함
질문 05~06 · 문항 13~18

짧은 문장 ↔ 정확한 요약
관계·조건·범위를
보존해야 함
질문 07~08 · 문항 19~24

요약 방법: 삭제 · 선택 · 일반화 · 재구성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01	②
02	④
03	점검 대기 공구만 쌓일 수 있으므로 실제 점검할 사람과 시간을 함께 마련해야 함
04	①
05	③
06	(1) 상태를 구분하는 방안과 점검 담당·시간의 필요성을 제시함 (2) 시험 효과와 한계를 밝히고 기록과 실제 점검의 연결을 강조함
07	③
08	①
09	35명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며, 망설이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간 행동은 기록하지 않았음
10	④
11	②
12	(1) 1·4문단: 날짜·방문객 차이로 안내판만의 효과 미확인 (2) 3문단(또는 3·5문단): 망설임·따라가기 미기록
13	④
14	②
15	유지: 전체 경로를 한눈에 파악하는 간결함 / 보완: 계단·경사·우회 경로, 날짜가 있는 임시 통제 안내 등
16	③
17	①
18	(1) 글쓴이 (2) 세 의견을 서로 다른 요구로 재해석함 (3) 글쓴이 (4) 앞 의견들을 받아들여 간결함 유지·정보 보완·구별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내림
19	①
20	③
21	새 파일의 설명을 갖추고 한 구역의 오전 자료 세 개를 보충했으나, 모든 구역·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22	②
23	④

문항	정답
24	(1) 접근하기 쉬운 시간·장소에 기록이 몰려 자료가 마을 전체를 고르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없음 (2) 소리의 맥락을 붙이고 기록 범위·빈 부분을 밝혀 부족한 기록을 보완해야 함

자료 A 구조 지도

자료 A · 문제에서 실행 조건까지



01 **정답: ②.** 2문단은 반납과 대여 가능 상태를 구별하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고, 3~4문단은 기록 구분과 실제 점검의 연결을 제안합니다. 6문단도 이 관계를 다시 강조합니다.

오답 ① 3문단의 기록 구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4문단의 점검 담당·시간이라는 실행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오답 ③ 2문단에서 반납 시간은 이미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납 시간만으로 실제 대여 가능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오답 ④ 4문단은 기록 양식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5문단은 수리 속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2 · 중심 생각과 문단 전체의 연결.

02 **정답: ④.** 1문단의 '돌아온 드릴을 빌려줄 수 없었던 일'을 2문단의 기록 문제와 연결하면 불편이 생긴 배경이 드러납니다. 2문단은 드릴의 고장 자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① 2문단은 드릴의 고장 자체가 생긴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작동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공구도 같은 상태로 남는 기록 문제를 설명합니다.

오답 ②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3문단입니다. 2문단은 기존 기록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오답 ③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관한 횟수나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 · 내용과 역할 · 설명하는 원인의 범위.

---

03 **예시 답:** 기록 양식만 바꾸면 점검 대기 공구가 쌓일 수 있으므로, 실제 점검할 사람과 시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채점: 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 공구가 쌓일 수 있다는 문제 ② 점검 담당과 시간의 확보를 연결하면 인정합니다. '점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 사람·시간을 갖춘다는 뜻이 드러날 때 인정합니다. '표시 칸을 더 늘린다'만 쓰면 실행 조건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2 · 제안과 실행 조건.

---

04 **정답: ①.** 5문단은 시험한 두 주 동안의 예약 목록 결과를 제시하고, 수리 속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긋습니다.

오답 ② 대기 공구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는 4문단에 있지만, 5문단에 실제로 쌓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답 ③ 수리가 필요한 공구를 따로 보관하자는 제안은 시험 결과 앞인 3문단에 나옵니다.

오답 ④ 수리가 모두 끝났다는 수치는 없고, 수리 속도도 미확인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2 · 결과 제시와 판단의 한계.

---

05 **정답: ③.** '확인한 뒤에 대여 가능 표시를 붙인다'는 3문단의 제안을 손수레에 적용한 예입니다.

오답 ① 추가 문장은 새 방식에서 대여 가능 표시를 붙이는 규칙입니다. 이전의 드릴 반납 사례를 하나 더 제시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답 ② 기존 장부에 대여 가능 표시가 있었는데 잘못 붙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새 방식의 실행 예를 기존 기록 문제의 예로 옮겼습니다.

오답 ④ 추가 문장은 점검 담당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 뒤 표시를 붙인다는 규칙을 말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 · 일반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예의 연결.

06 **예시 답:** (1) 상태를 구분해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점검할 사람과 시간이 필요함을 밝힙니다. (2) 시험에서 확인한 효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기록과 실제 점검을 연결해야 한다는 중심 생각을 강조합니다.

채점: (1)은 '상태 구분'과 '점검 담당·시간'을, (2)는 '시험 결과와 한계'와 '기록·실제 점검의 연결'을 포함하면 인정합니다. '해결 방안 제시 / 결론'처럼 역할 이름만 쓰고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문구와 문장 끝은 달라도 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2 · 문단 묶음과 전체 구조.

자료 B 연결 지도

자료 B · 떨어진 정보의 연결



07 **정답:** ③. 4문단에서 두 안내판을 둔 날의 확인 요청 인원 12명과 5명을 제시한 뒤 '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오답 ① 관찰 인원은 두 날 모두 40명입니다.

오답 ② 글씨와 화살표의 변경은 2문단의 내용입니다. 4문단의 지시 표현은 바로 앞에서 비교한 확인 요청 인원을 가리킵니다.

오답 ④ 35명 모두 쉽게 길을 찾았는지는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 · 지시 표현의 범위.

08 **정답: ①.** 1문단에서 방향 질문만 확인 요청으로 정했고, 3문단에서 같은 사람은 반복 질문해도 한 명으로 센다고 했습니다. 두 문단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오답 ② 방향을 물은 횟수와 사람 수를 혼동했습니다.

오답 ③ 가격 질문을 포함했고, 질문 횟수도 사람 수로 바꾸었습니다.

오답 ④ 다른 질문도 했다는 이유로 방향을 물은 사람을 제외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04 · 정의·집계 단위의 연결.

---

09 **예시 답:** 35명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사람 수일 뿐이며, 그중 망설였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헤매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점: ① 질문하지 않은 사람 수라는 뜻 ② 망설임 또는 따라가기 중 하나 이상이 미기록이라는 점을 연결하면 인정합니다. '35명은 모두 헤맸다'도 기록에 없는 단정입니다. 안내판의 효과를 분리하지 못했다는 말만 쓰면 이 문항이 요구하는 35명의 이동 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미확인의 유지 · 관찰한 내용과 관찰하지 않은 내용.

---

10 **정답: ④.** 2문단의 동시 변경이라는 한계를 6문단의 한 요소 변경 계획이 보완합니다. 다른 차이를 살피는 계획도 있으므로, 한 요소만 바꾸면 모든 비교 조건이 자동으로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답 ① 두 요소를 함께 바꾸어서 효과를 각각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답 ② 2문단에서 두 날의 길 배치와 직원 위치는 같았다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같다고 한 조건을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오답 ③ 6문단은 관찰할 행동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앞의 한계와 뒤의 보완 계획.

---

11 **정답: ②.** 확인 요청 인원이 줄어든 기록은 있지만, 다른 날짜·방문객이라는 차이와 미관찰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오답 ① 35명의 이동 과정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답 ③ 효과 해석의 한계가 관찰 수치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답 ④ 두 날의 관찰 대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미확인의 유지 · 시간적 순서와 인과 · 기록과 해석.

12

예시 답: (1) 1·4문단: 두 날의 날짜와 방문객이 달라 확인 요청 인원의 차이가 안내판 변경만으로 생겼다고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2) 3문단(또는 3·5문단): 확인 요청 여부만 기록하여, 질문하지 않은 사람이 망설였거나 남을 따라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점: 각 칸에 한계와 문단 번호를 함께 쓰면 인정합니다. (1)은 4문단만 적어도 날짜·방문객 차이와 원인 확정의 한계가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1문단만 적을 때도 다른 날짜·방문객이라는 조건과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뜻을 연결해야 합니다. '글씨·화살표를 함께 바꿈'은 예시 행의 한계이므로 (1)의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는 문단 번호와 망설임 또는 따라가기 행동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문항09와 근거가 겹치지만 이번에는 앞의 한계를 해당 문단과 뒤의 계획에 대응시켜야 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04 · 문단 간 대응 · 미확인의 유지.

자료 C 관점 지도

자료 C · 의견 소개와 글쓴이 판단

2~4문단 · 세 사람의 의견 소개

- **자주 걷는 사람** — 전체 경로를 빠르게 파악
- **휠체어 이용자** — 실제 이동 가능성 판단
- **관리 담당자** — 변경 상태와 수정 날짜

↓ 요구를 비교

5문단 · 글쓴이의 재해석

단순히 표시가 적다·많다의 대립이 아님
이용 조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름

↓ 앞 의견을 받아들여 판단

6문단 · 글쓴이의 최종 판단

간결함 유지 · 필요한 이동·변경 정보 보완
기본 경로와 추가 정보를 구별해 읽도록 정리

표시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님

13 **정답:** ④. 두 사람은 같은 지도를 보지만 익숙함과 이동 조건이 다르므로 필요한 정보의 기준도 다릅니다.

오답 ① 설명을 줄이자는 의견을 모두 없애자는 말로, 필요한 정보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을수록 좋다는 말로 넓혔습니다. 5문단도 단순한 많고 적음의 대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답 ② 수정 날짜를 중요하게 보는 주체는 4문단의 관리 담당자입니다.

오답 ③ 3문단의 이용자는 계단·경사·우회 경로 등 실제 이동 가능성을 판단할 정보를 중요하게 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 · 의견 주체와 평가 기준.

---

14 **정답:** ②. 4문단은 바뀔 수 있는 통제 구간과 지난 정보가 남는 문제를 연결하여 수정 날짜와 현장 안내를 말합니다.

오답 ① 계단·경사 등의 정보는 3문단의 처음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오답 ③ 익숙한 정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2문단의 자주 걷는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오답 ④ 4문단은 정보의 양보다 그 정보가 언제의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고 밝힙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 · 새로운 기준의 추가.

---

15 **예시 답:** 전체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간결함은 유지하고, 실제 이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계단·경사와 우회 경로를 보완합니다.

채점: 유지할 장점과 보완할 정보 한 가지 이상을 구별하면 인정합니다. 보완에는 계단·경사·우회 경로, 수정 날짜가 있는 임시 통제 안내가 인정됩니다. '보기 좋게 고친다'만 쓰면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표시를 모두 없앤다'는 유지할 장점의 뜻을 넓힌 것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6 · 부분 인정과 보완.

---

16 **정답:** ③. 2~4문단은 세 사람의 의견을 소개하고, 6문단의 '나는'은 그들과 구별되는 글쓴이를 가리킵니다. 1문단도 '글쓴이인 나'라고 밝혔습니다.

오답 ① 소개한 의견을 곧바로 글쓴이의 최종 판단으로 삼았습니다.

오답 ② 6문단은 전체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을 유지합니다.

오답 ④ 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소개한 뒤에도 글쓴이와 그 사람은 구별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 · 인용·소개와 글쓴이의 판단.

17 **정답: ①.** 필요한 표시를 넣자는 말에 '많이 넣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이 붙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구별해 읽을 수 있는 정리까지 요구합니다.

오답 ② 필요한 표시를 보완하자는 제안을 거두지 않고, 표시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석을 제한합니다.

오답 ③ 두 사람의 의견 중 하나가 더 옳다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오답 ④ 간결함은 유지하지만 필요한 정보의 추가도 요구합니다. 첫 시안 그대로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아닙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6 · 역접 표현과 제한의 범위.

---

18 **예시 답:** (1) 글쓴이. (2) 세 의견을 표시의 많고 적음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로 정리하고, 한 사람의 익숙함을 모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글쓴이. (4) 첫 시안의 간결함은 유지하고 이동·변경 정보를 보완하되, 구별해 읽을 수 있게 정리하자는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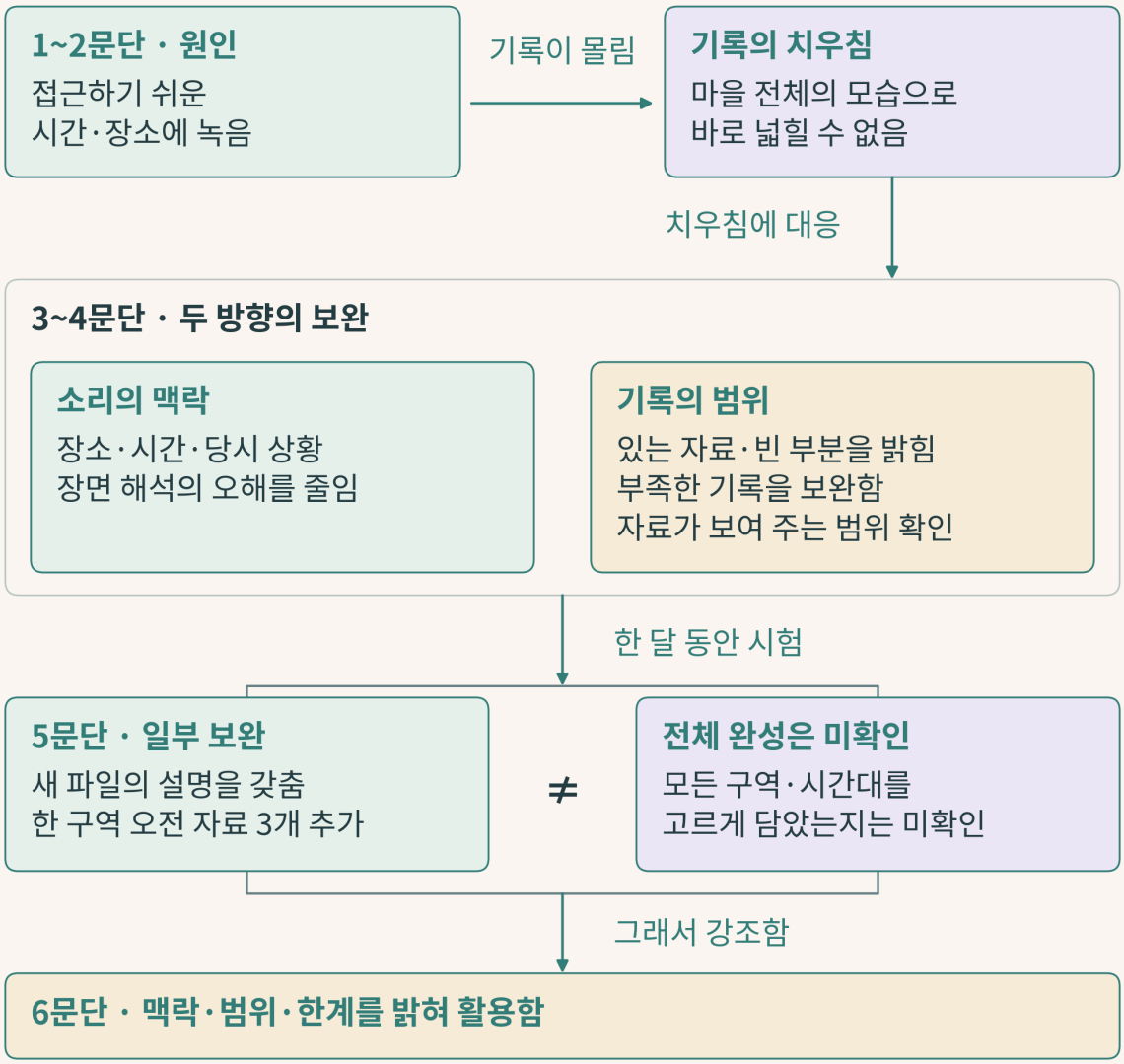
채점: (1)·(3)은 글쓴이로 답합니다. (1)을 '세 사람'이나 '관리 담당자'로 쓰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5문단은 앞 의견들을 글쓴이가 다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2)는 세 의견을 단순한 표시 수의 대립이 아니라 이용 조건에 따른 요구 차이로 재해석한다는 역할이 드러나면 인정합니다. (4)는 앞 의견들의 장점과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최종 판단을 제시한다는 역할을 중심으로 봅니다. 간결함 유지·필요 정보 보완을 구체적으로 적어도 되지만, 문항15의 세부 항목을 모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를 많이 넣자'만 쓰거나 항목만 나열하면 역할 설명이 부족합니다.

자료 C 관점 지도(34쪽)의 세 층은 '2~4문단 의견 소개 / 5문단 글쓴이의 재해석 / 6문단 글쓴이의 최종 판단'을 보여 줍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06 · 의견 주체 · 관점과 판단의 이동.

자료 D 요약 지도

자료 D · 핵심 관계와 범위를 보존한 요약



19 **정답:** ①. 3~4문단의 보완 방안과 6문단의 중심 생각을 함께 담았습니다.

오답 ② 사진과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사진보다 정확하다는 비교로 바꾸고, 기록량만 늘리자는 쪽으로 넓혔습니다.

오답 ③ 소리의 맥락을 설명하는 일과 모든 구역·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하는 일은 다릅니다.

오답 ④ 한 구역의 오전 자료 세 개를 보충했을 뿐, 모든 시간과 구역을 고르게 기록했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핵심 관계와 범위.

20 **정답: ③.** 작업·정리 중인지, 행사·평소인지 모두 소리가 녹음된 당시의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오답 ① 장소는 상황과 함께 적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작업·정리 여부나 행사 여부의 공통점은 장소가 아니라 당시 상황입니다.

오답 ② 공방·운동장의 소리는 대상을 나열한 말입니다. 제시된 설명의 공통점을 상위어로 묶지 못했습니다.

오답 ④ 작업·정리, 행사·평소라는 녹음 상황을 마을 생활의 모든 모습으로 넓혔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8 · 일반화 · 실제 공통점에 맞게 묶기.

---

21 **예시 답:** 시험 뒤 새 파일의 설명을 갖추고 한 구역의 오전 자료 세 개를 보충했지만, 모든 구역과 시간대를 고르게 기록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점: ① 새 파일의 설명과 일부 자료 보충이라는 확인 결과 ② 전체 구역·시간대의 고른 기록은 미확인이라는 한계를 포함하면 인정합니다. 세 개라는 수치를 빼고 '비어 있던 일부 자료를 보충했다'로 써도 됩니다. '모든 곳과 시간대를 고르게 담았는지는 알 수 없다'처럼 풀어 써도 됩니다. '빠진 자료를 보충하여'를 그대로 두면 일부 보충이 전체 보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한 구역' 또는 '일부'라는 범위를 밝혀야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실제 성과까지 지워 오답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미확인의 유지 / 질문 08 · 일부와 전체 · 확인 결과의 보존.

---

22 **정답: ②.** 2문단은 접근하기 쉬운 조건을 기록량이 치우친 이유로 제시하고, 기록량을 장소의 중요성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답 ① '중요해서 많이 기록했다'는 원인을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오답 ③ 기록이 많이 남은 조건을 주민 생활 전체의 실제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록의 치우침을 생활의 치우침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답 ④ 2문단의 원인은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시간·장소입니다. 참여자 수가 적었다는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고, 적게 담긴 것을 전혀 담지 못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미확인의 유지 / 질문 07~08 · 원인과 판단 관계를 보존하는 요약.

---

23 **정답: ④.** 글 전체 요약에서는 개별 소리 이름은 삭제할 수 있지만, 치우침의 이유와 맥락·범위를 밝히는 방안은 중심을 이루므로 남겨야 합니다.

오답 ① 사례를 중심보다 앞세워 핵심 방안을 삭제했습니다.

오답 ② 한 구역·아직 같은 말은 확인한 범위를 제한합니다. 삭제하면 일부 보완이 전체 완성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답 ③ 몇 가지 소리의 사례를 마을의 모든 소리로 묶어 실제 기록된 범위를 넓혔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삭제와 뜻의 변경.

24

예시 답: (1) 참여자가 접근하기 쉬운 시간과 장소에 기록이 몰려, 모은 소리가 마을 전체의 생활을 고르게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소리를 이해할 장소·시간·상황을 붙이고 기록된 범위와 빈 부분을 밝혀, 부족한 기록을 보완하면서 한계 안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점: 첫 문장에 ① 접근 조건에 따른 치우침 ② 전체를 고르게 담았다고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둘째 문장에 ③ 맥락 설명 ④ 기록 범위·빈 부분 공개 및 부족한 기록의 보완을 포함하면 인정합니다. '맥락'이라는 낱말 없이 장소·시간·상황을 풀어 써도 됩니다. 핵심 관계가 유지되면 어순과 표현은 달라도 됩니다. '자료가 적은 곳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전체 기록을 완성했다'는 원문과 반대입니다. 한 문장으로만 쓰면 내용 충족 여부와 별개로 두 문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핵심의 재구성 · 범위와 한계의 보존.